

제11권 21호

2021. 10. 11~2021. 10. 24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 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 논단** 자본시장 발전 위한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기대
- 이슈분석** 한국 배터리 산업의 최근 현황과 전망
- 금융경영브리프** 美 금융기관, 고령층 디지털금융 서비스 차별화  
Vast bank, 美 은행 최초 가상자산 매매서비스 출시
- 금융시장모니터** 금 리: 인플레이션 우려 고조 속 상승 압력 확대  
외 환: 美테이퍼링 경계에 따른 강달러 압력 지속
- 금융지표** 국내 금융시장  
해외 금융시장

# 인간

## 연구자는 사람<sup>+</sup>, 고객은 사람<sup>++</sup>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사람을 바꿔야 합니다.

현실에 기초한 진지한 연구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창조하는 것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사명입니다.



### 집필진

#### 편집

연구위원 윤병수(hybs)  
연구원 김효섭(hyosupk)

#### 이슈분석

연구위원 오유진(yujin.oh)

#### 금융경영브리프

연구위원 윤선영(sunyy)  
연구원 김효섭(hyosupk)

#### 금융시장모니터

금 리 | 수석연구원 이화정(hj\_lee89)  
외 환 | 연구원 윤지선(jisun.yun)

#### 금융지표

연구원 최제민(jemin.choi)

# 하나금융 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 01 **논단** 자본시장 발전 위한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기대
- 04 **이슈분석** 한국 배터리 산업의 최근 현황과 전망
- 08 **금융경영브리프** 美 금융기관, 고령층 디지털금융 서비스 차별화  
Vast bank, 美 은행 최초 가상자산 매매서비스 출시
- 12 **금융시장모니터** 금 리: 인플레이션 우려 고조 속 상승 압력 확대  
외 환: 美테이퍼링 경계에 따른 강달러 압력 지속
- 16 **금융지표** 국내 금융시장  
해외 금융시장



## 자본시장 발전 위한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기대\*

안 성 학 연구위원(shahn0330@hanafn.com)

지난 4월에 개정된 자본시장법이 경과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2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특히 사모펀드 분류 기준이 운용목적 기준에서 투자자 기준으로 법이 개정되고 현행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서 자율성이 개선된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변경되면서 기대가 커지고 있다. 현행 규제로 인해 외국계 사모펀드(PEF) 대비 역차별 요소가 상당 부분 해소됨으로써 국내 자본시장 성장에 더욱 적극적인 역할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향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등의 후속조치 마련과 함께 투자목적회사 설립요건 완화 등 추가 개선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2017년 자본시장 육성의 일환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전문사모운용사 진입 문턱을 크게 낮춘 바 있다. 이로 인해 사모펀드 시장은 공모펀드 시장 규모를 크게 앞질러 빠르게 성장하였다. 그러나 많은 전문사모운용사들이 한꺼번에 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소비자보호 문제에 대한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의 하나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고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대한 신뢰가 하락함에 따라 개인투자자의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참여에 의한 자본시장 발전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또 다른 형태의 사모펀드인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지난 4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성장 속도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 자율성이 개선된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대한 기대 증가

지난 4월 자본시장법 개정의 주요 내용 중의 하나는 사모펀드 분류를 운용목적 기준에서 투자자 기준으로 바꾸는 것이다. 즉 현행 전문운용형 사모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서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기준을 변경하고 일반투자자는 일반 사모펀드에만 참여가 가능하며 기관전용 사모펀드에는 기관투자자와 이에 준하는 투자자만 참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러한 내용의 개정 자본시장법은 6개월간 경과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21일에 시행되는데 기관전용 사모펀드가 현행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비해 자율성이 크게 개선된다는 점에서 자본시장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사모펀드 분류가 투자자 기준으로 변경되는 가운데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자본시장 성장 기여도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

\*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지금까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는 신생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및 기업공개, 성숙기업의 M&A,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참여 등을 통해 국내 자본시장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국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시장은 2004년 약정액 0.4조원에서 출발하여 2014년 51.2조원, 2021년 6월말 104조 원으로 급성장하였다. 이러한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규제로 인해 다소 아쉬운 점이 있었다. 특히 국내 PEF의 자본시장 참여가 일부 제한되었고 이에 따른 이익도 규제에서 자유로운 외국계 사모펀드(PEF)에게 주어졌다는 점에서 역차별 문제를 가져왔다.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경영참여 의무가 없어 다양한 전략이 가능하게 되어 기존의 외국계 사모펀드와에 대한 역차별이 상당부분 해소

이러한 문제가 기관전용 사모펀드 체제에서는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해당기업 지분의 10% 이상을 보유하거나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할 수 있어야 했다. 이에 따라 많은 자금이 필요한 대형기업의 투자일 경우 10%이상의 지분확보 의무가 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외국계 사모펀드(PEF)는 이러한 의무가 없으며, 주주행동주의 전략을 표방한 일부 외국계 사모펀드(PEF)는 소수의 지분만으로 국내 대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고 막대한 자본이득을 가져간 사례가 자주 목격된 바 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경영참여 의무가 없어 외국계 사모펀드(PEF)와 동일한 선상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되었다. 소수지분으로도 다양한 전략이 가능해짐에 따라 외국계 사모펀드(PEF)처럼 주주행동주의를 표방하는 사모펀드가 증가하여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를 더욱 효율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레버리지 사용도 확대되어 사모대출펀드의 출현도 기대

또한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기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보다 레버리지 활용 환경이 개선되었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순재산의 10% 내에서만 레버리지 활용이 가능하여 레버리지가 필요한 경우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기도 하였다. SPC를 통한 레버리지 한도는 순재산의 300% 이내이다. 반면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일반 사모펀드와 동일한 수준인 순재산의 400%로 레버리지 사용이 확대되어 다양한 사모펀드 전략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즉, 기업지분 외에 회사채 투자도 가능하게 되어 사모대출펀드(PDF) 형태의 기관전용 사모펀드 등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사전적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이 PDF 형태의 사모펀드로부터 자금조달이 가능해짐에 따라 PEF 참여보다 경영권 상실 부담이 훨씬 적어져 자체적인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른 한편으로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대한 개인투자자 출자를 제한함으로써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기관투자자에 의한 자정능력이 강화될 것이다.

기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전문투자자로서 개인투자자의 참여가 가능하며 중소형 사모펀드들이 자금조달 창구로 활용하였다. 이로 인해 중소형 업무집행사원(GP)들이 난립하게 되고 경영참여형 사모펀드가 일부 개인의 일탈행위로 활용될 수 있는 여지도 있었다. 그러나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기관투자자와 이에 준하는 투자자만 참여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업무집행사원(GP)들의 자금조달 경쟁이 심화되면서 연기금 등 유한책임사원(LP)의 영향력이 확대된다. 정보력에서 우월한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하고 업무집행사원을 적극적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되어 기관전용 사모펀드 시장이 더욱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구나 유한책임사원의 펀드 검사시 금융당국의 사전 승인절차가 없어져 유한책임사원의 영향력은 더욱 강화되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대한 유한책임사원의 보다 적극적인 감시가 가능하여 기관투자자에 의한 자정능력도 강화

### ∴ 후속조치 마련과 추가적인 개선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오는 10월 21일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한국 자본시장에 미치는 선순환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들이 조속히 수반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시행령 상의 업무집행사원의 투자목적회사 설립에 대한 요건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규정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가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할 때 지분 50% 이상을 보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경영권 참여 의무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투자목적회사 설립이 인수금융이나 공동투자시 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나, 지분 50% 이상 보유 규정은 투자목적회사 설립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제 기관전용 사모펀드가 경영권참여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투자목적회사 설립요건 중의 하나인 지분 50% 이상 보유 요건은 상당 수준 완화되어야 한다.

시행령 등 후속조치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고, 외국계 사모펀드와의 역차별 요소가 남아있는지, 추가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부분이 있는지 등의 검토가 필요

이러한 자본시장법 개정과 관련한 세부적인 후속조치 마련과 더불어 외국계 사모펀드(PEF)와의 역차별 요소가 여전히 남아 있는지, 추가적인 개선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기관전용 사모펀드가 한국 자본시장에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 한국 배터리 산업의 최근 현황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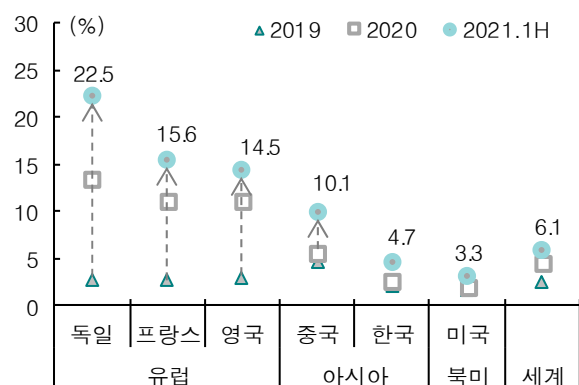
오 유 진 연구위원(yujin.oh@hanafn.com)

세계적으로 전기차 보급 속도가 빨라지면서 한국 배터리도 함께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중국, 유럽에 이어 가장 늦게 열리는 미국 시장에 주목하고 있으며,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생산시설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주요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는 배터리 화재는 모든 셀 제조기업이 가지고 있는 잠재 위험이다. 한국 기업들은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제품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 자동차 업체와 적극적 협력으로 사업 불확실성을 낮춰나갈 필요가 있다.

### ■ 세계적으로 전기차 보급이 빨라지면서 한국 배터리 업계도 가파른 성장세 시현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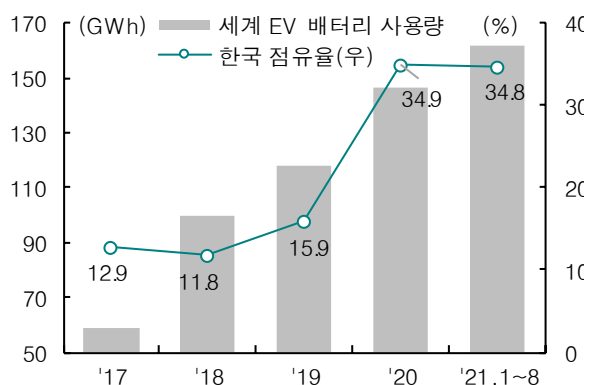
- 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2019년 212만대에서 2020년 299만대로 늘어났으며, 2021년 상반기에도 전년 동기대비 168% 늘어난 263만대를 기록하는 등 성장세 지속
- 성장을 주도하는 곳은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지역으로 전기차 판매 침투율이 2019년 2~3%대에서 2021년 상반기에는 10% 중후반 수준으로 상승
  - 전기차 보급이 가장 가파른 곳은 노르웨이로 2021년 1~7월 車 판매량의 58% 차지
-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에서도 2021년 1~8월 판매량이 전년 동기대비 194% 증가한 180만대를 기록하는 등 보급 속도가 더욱 빨라지는 모습
- 세계 전기차용 리튬 배터리 사용량은 2019년 118GWh에서 2020년 147GWh로 늘어난데 이어 2021년 1~8월에는 약 162GWh로 전년 동기대비 139% 상승
- 유럽 등 국내 주력 시장의 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한국 배터리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2019년 15.9%에서 2021년 1~8월 34.8%로 크게 확대

#### ■ 세계 주요국 전기차 판매 침투율



자료 : IEA, EV Volumes, Bloomberg

#### ■ 세계 EV 배터리 사용량 및 한국 시장 점유율 동향



자료 : SNE resea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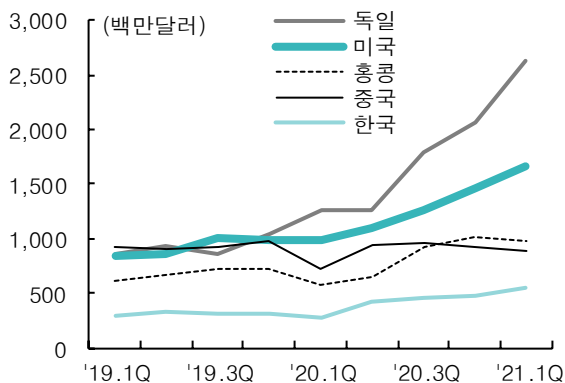
■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중국, 유럽에 이어 가장 늦게 열리는 미국 시장에 주목하고 있으며, 향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공격적인 생산시설 투자를 진행

- 현재 전기차 시장의 약 40%를 차지하는 중국과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유럽에 이어 미국이 후발 주자로 빠른 성장세를 나타낼 전망
  - 바이든 대통령은 2030년까지 美 자동차 판매의 50%를 전기차로 채우겠다는 목표
- 미국 정부는 전기차 확대의 핵심 품목인 배터리 공급망의 脫중국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한국 등 동맹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자 함
- SK이노베이션은 美 테네시주·켄터키주에 포드와 함께 배터리 생산 및 전기차 조립 공장 건설을 위해 약 13조원을 투자할 계획
  - 이는 SK이노베이션 역사상 단일 투자기준 최대 규모이며, 양 사의 합작법인인 블루오벌SK의 예상 배터리 생산능력은 129GWh로 2025년 가동이 목표
- LG에너지솔루션은 GM과의 JV를 통해 美 오하이오주·테네시주에 70GWh 배터리 생산시설을 건설하고 있으며, 미국 내 생산능력을 145GWh로 확대할 예정

■ 현재 한국의 주력 시장인 유럽은 역내 공급망 구축에 따른 경쟁심화로 M/S 하락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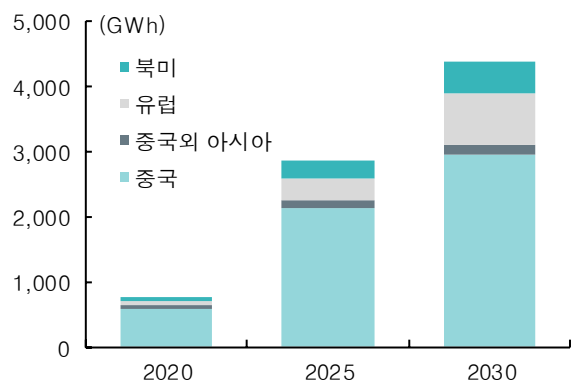
- 유럽은 미래차 혁신주도 및 성장산업 고용창출을 위해 역내 배터리 공급망 구축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스타트업들의 배터리 제조업 신규 진출이 활발
  - 노스볼트(스웨덴), 브리티시볼트(영국), Verkor(프랑스), Freyer(노르웨이), InoBat(슬로바키아), Italtvolt(이탈리아) 등이 대표적인 유럽 내 배터리 스타트업
- 테슬라, 폭스바겐, PSA 등 자동차 기업들이 유럽 내 배터리 생산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CATL, Farasis, BYD 등 중국 배터리 기업들도 유럽 진출을 확대하고 있어 한국 기업들의 유럽시장 점유율이 점진적으로 위축될 우려

■ 세계 국가별 리튬 배터리 수입 동향



주 : HS코드 850760, 수입 상위 5개국 기준  
 자료 : trademap

■ 지역별 배터리 셀 제조 능력 전망



자료 : Benchmark Mineral Intelligence, WSJ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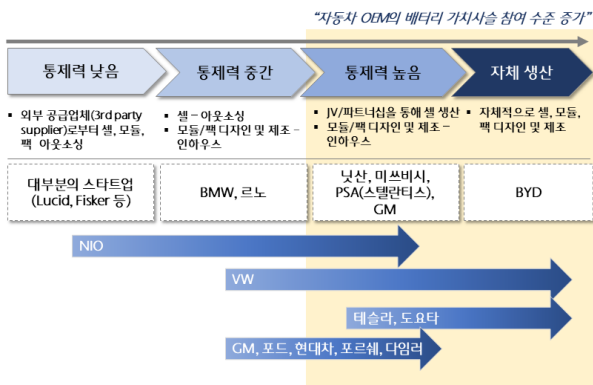
■ 전기차 원가절감 및 성능 확보를 위해 자동차 OEM의 배터리 가치사슬 참여 수준 상승

- 도요타는 자체 전기차 배터리 생산능력 확보 및 기술개발에 1조 5000억엔을 투자하여 현재 6GWh인 생산능력을 2030년까지 200GWh로 확대할 계획
  - 자사가 개발한 전고체 전지를 적용한 프로토타입 전기차를 함께 공개
- 폭스바겐은 2030년까지 150억 유로를 투자해 240GWh 규모의 배터리 셀 생산을 내재화할 계획으로 40GWh 규모의 셀 공장 6개를 신설할 예정
  - 최근 독일 잘츠기터에 7천만 유로를 투자해 자체 배터리 셀 연구소 4곳을 개소
- 다임러는 400억 유로를 투자해 배터리 전문 제조사와 합작하여 유럽 및 미·중 등에 총 200GWh 규모의 8개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신설할 계획
  - 다임러는 최근 스텔란티스와 TotalEnergies의 배터리 셀 생산 합작법인인 ACC의 지분 33%를 인수하였으며, 이를 통해 배터리 셀 개발 및 생산을 추진

■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사고/화재 등으로 배터리의 안전성 및 품질 리스크 부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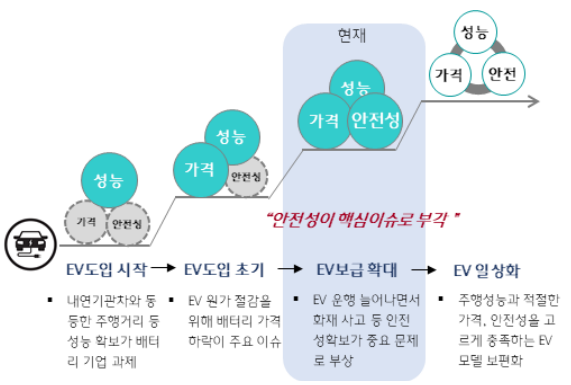
- 사고 등 외부 충격으로 인한 배터리 단락, 배터리 관리시스템 문제, 불순물 유입에 따른 셀 생산 결함 등 여러 원인으로 세계 각지에서 전기차 화재사고가 증가
- 2020년 하반기부터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Farasis Energy(中), ZTE High Energy(中) 등 주요 업체들을 대상으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리콜이 발생
- 전기차 이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배터리의 성능 개선 및 가격 하락과 함께 각종 사고에 전될 수 있는 안전성 확보가 이루어져야 함
-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제품 폼팩터 및 안정성이 높은 양극재 물질 변경 검토, 셀 디자인 개선, 생산과정 개선 및 품질관리 강화 등 다양한 대응방안 마련 중

■ 주요 자동차 OEM들의 배터리 사업 참여 변화



자료 : Ultima Media,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전기차 확대에 따른 주요 배터리 이슈 변화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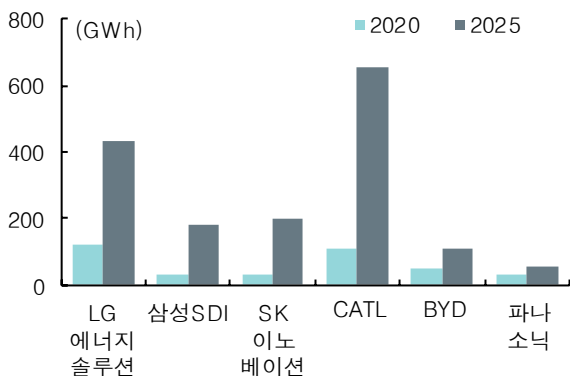
■ 대규모 시설 투자 및 R&D 비용, 양산·품질관리의 난이도 등 산업의 특징을 고려했을 때, 후발주자들의 진입에도 불구하고 한국 배터리는 양호한 시장 지위를 유지할 전망

- 리튬 배터리는 세계적으로 소수의 플레이어가 전체 시장을 주도하는 산업으로 기술 개발 및 생산 난이도, 대규모 시설 투자비용 등의 진입장벽이 높음
- 2020~2025년 세계 EV 배터리 수요는 연평균 40% 이상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검증된 제품 이력을 보유하고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업은 소수에 불과
- 한국 기업은 장기간에 걸친 기술개발과 제조 노하우, 다변화된 글로벌 생산 거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수한 고객 관계를 바탕으로 세계 상위권의 수주잔고를 확보
- 또한 경쟁상대인 중국 기업보다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자유로운 편으로 우수한 시장 지위를 바탕으로 美·유럽의 배터리 지역 공급망 구축에 참여 가능

■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제품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 자동차 업체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사업 불확실성을 낮춰갈 필요

- 현재 주요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는 배터리 화재는 모든 셀 제조기업이 겪을 수 있는 공통적 잠재 위험이며, 전기차의 안정적 이용을 위해 선결이 요구
- 배터리의 폼팩터, 셀 물질구성 등에서 볼 때 전기차 배터리는 아직 주류 기술이 확립되지 않았으며, 장기적으로 어떤 방식이 주도권을 가져갈지 알 수 없음
- 한국 배터리는 안정성 중심 설계 및 검증된 양산 기술 확보 등으로 시장 신뢰성을 회복해 나가야 하며, 전고체 전지 등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 집중해야 함
- 배터리 산업은 수주 산업으로 생태계 구조상 완성차 기업들이 선택권을 쥐고 있는 만큼, 기술개발, 생산 등에서 자동차 OEM들과 협력을 강화할 필요 

■ 주요 배터리 기업별 생산능력 전망



자료 : 각 사 발표, HSBC

■ 한국 배터리 기업의 기회 및 리스크 요인

기회 요인	리스크 요인
<p><b>1</b> 우수한 글로벌 시장 지위</p> <p>"검증된 제품 이력, 가장 다변화된 생산 거점 보유"</p>	<p><b>1</b> 화재 등 안전성 문제로 인한 리콜 리스크 지속</p>
<p><b>2</b> 견조한 성장 전망</p> <p>"기 확립된 고객 관계를 바탕으로 수주 잔고 대량 축적"</p>	<p><b>2</b> 대체 기술의 위협 (LFP 계열, 전고체전지 등 차세대 배터리)</p>
<p><b>3</b> 중국기업보다 지정학적 리스크 낮음</p> <p>"미, 유럽의 지역 배터리 공급망 구축 참여"</p>	<p><b>3</b> 셀 제조분야 경쟁 심화 (기술개발, 단가, 생산능력 등)</p>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美 금융기관, 고령층 디지털금융 서비스 차별화

윤 선 영 연구위원(sunny@hanafn.com)

미국은 고령층의 ‘디지털 소외’를 해소하기 위해 이동식 점포, 시니어 전용 창구 등 오프라인 채널을 특화시키는 한편, 그들의 금융자산을 보호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디지털서비스에 집중한다. 사기 방지 목적의 AI 머신러닝, 계정의 공동 관리 시스템, 생체 기술 접목 등이 그 예이다. 국내 역시 고령층을 위한 디지털금융 정책 마련, 교육 강화, 특화 앱 개발 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들이 손쉽게 접근하고, 안전하게 재정을 관리/지원할 수 있는 차별화된 디지털서비스 개발이 요구된다.

### ■ 미국의 고령층을 위한 디지털금융은 신체적/인지적 저하를 고려하여 금융 사고를 방지하고 보호하는데 집중

- BOA(Bank Of America), Wells Fargo 등은 고령층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계좌, 지출, 투자 현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
  - 인출액 증가, 비활성계좌 거래 등 위험 즉시 탐지 및 사전 예방 프로그램 적용
- 금융 보안 솔루션 공급 기관인 EVERSAFE는 금융범죄 유형 및 AI머신러닝으로 분석한 고령자 개인의 재정 프로파일링 정보를 융합하여 금융사기 가능성 탐지 및 개인화된 맞춤 경고 제공
- 고령자 특화 핀테크 기업인 TRUE LINK는 세분화된 지출 관리, 비정상 지출 감지 / 차단 서비스 제공
  - 특정 판매자, 결제 품목 유형, 서비스 제공 단체 등을 구분한 세분화된 결제 차단 기능, 비정상 지출에 대한 알림, ATM 인출 및 일일 지출 한도 설정 기능 제공


### ■ 고령자 본인 및 보호자(후견인)가 금융자산을 공동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제공

- BOA의 ‘Elder Financial Care’, HSBC의 ‘Basic banking account with independence’는 고령자 계정/지출의 독립성은 보장하되 보호자를 계정의 공동 관리자로 지정하여 해당 계좌를 공동 관리, 사기 등을 감시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제공
- EVERSAFE는 고령자의 계정, 거래기관, 청구내역 등을 함께 공유하고 관리할 수 있는 가족 대시보드를 제공하고, 금융 통합 소프트웨어 플랫폼인 ONIST 역시 금융 정보를 한 곳에 모아 고령자와 보호자가 공동 관리할 수 있는 쉽고 직관적인 디지털 오피스 제공

■ 생체 인증 기술, Voice 채팅 등을 통해 고령층의 디지털 채널 접근성 제고

- HSBC 등 다수 금융기관은 고령층을 위한 생체 인증(Voice/Face ID, 지문 등), 데이터 암호화, 타임아웃 기술 등을 적용
- BOA는 가상비서 ‘Erica’를 통해 고령층의 소비 내역 분석 및 세금 납부일 등의 지불 일정을 보다 쉽게 관리
  - Text 입력에 자유롭지 못한 고령층이 ‘Erica’와 말로 채팅하고, 고도화된 음성 인식 기술을 통해 요청 서비스를 채팅 화면에 바로 제공
- Capital One의 ‘Eno’는 줄임말(ex. account balance→bal), 이모티콘만으로도 소통
  - ‘Eno’는 농담 등의 감성적 응대뿐만 아니라 계좌번호 찾기, 지불 관리, 공동 관리자 지정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채팅 방식으로 보다 쉽게 제공

■ 국내 금융기관은 고령층 및 후세대와의 신뢰 관계 형성을 고려한 Age Friendly 디지털 서비스 개발 전략 필요

- 금융위원회는 ‘고령층 친화 디지털금융환경 조성 가이드라인’을 발표(2020.8) 하고, 고령층 전용 앱 페이지 개발, 관련교육 강화 등 세부 방안을 추진 중
  - 일반 앱과 구분된 큰 글씨, 쉬운 인터페이스, 서비스를 간소화한 고령자 전용 모바일금융 앱 개발과 수준별 맞춤형 교육 공급 등이 주요 방안으로 제시
- 고령층의 디지털금융 역량 강화는 제한적일 수 있어 이들의 신체/인지적 한계 및 그에 따른 금융 니즈를 이해하고 더욱 손쉬운 접근, 안전한 금융관리 지원을 위한 디지털서비스 개발 필요
- 고령자가 보호자와 동시 접속해 금융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고려 

■ 최근 5년간 고령자 금융사기 노출/피해 경험률 (미국)

금융사기 노출 및 피해 경험률	34.8%
- 본인 허락없이 계좌 사용 시도	29.5%
- 사기성 투자 유형 참여	4.9%
- 상품/경품 취득 비용 지급	4.3%
사기 피해자 특성 (설문대상: 50세 이상 응답자 1,286명 중)	평균 연령: 68세 인지 점수(27점 만점): 23.7점 주관적 금융지식(7점 만점): 4.97점

자료 : Pension Research Council Working paper(2018, 07),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2018, 08)

■ 국내 고령 친화 금융환경 조성 방안

비전	어르신들도 손쉽게, 믿고 쓰는 금융
추진목표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고령자 친화적 금융환경 조성
추진전략	제1부문 : 환경 변화에 대응한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 제고 제2부문 : 정보·협상력이 부족한 고령층의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제3부문 : 다양한 금융상품 공급을 통한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 제4부문 : 범부처적·금융권 자원의 금융사기·착취 방지 강화 제5부문 :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고령층의 금융역량 제고

자료 : 금융위원회(2020. 08)

## Vast bank, 美 은행 최초 가상자산 매매서비스 출시

김 효 섭 연구원(hyosupk@hanafn.com)

Vast Bank는 美 통화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미국 은행 최초로 가상자산 매매서비스를 출시하고 美 FDIC 가입에 따른 예금보장, 가상자산 커스터디 서비스 등을 통해 은행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가상자산 시장의 진입규제 확립 등 제도화가 추진되면서 Vast Bank를 비롯한 금융기관의 진입이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의 가상자산 사업에 대한 규제 논의를 검토하여 국내도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제도화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 ■ 美 Vast Bank는 미국 은행 중 최초로 가상자산 매매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

- ‘ 21.1월 통화감독청(OCC)의 승인을 받은 Vast Bank는 ’ 21.9월 미국 연방인가은행 (federally chartered bank) 중 최초로 가상자산 매매 서비스를 출시
  - 연방준비제도(FED) 인가 및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가입된 Vast Bank는 1982년 오클라호마주, 톨사에 설립된 은행으로 현재 해당지역에서 5개 지점을 운영
- Vast Bank 고객은 모바일앱을 통해 당좌예금계좌(checking account)에서 비트코인을 포함한 8개 가상자산에 대한 직접 매매 및 보관(custody)이 가능
  - 현재 취급 중인 가상자산 8개: 비트코인(BTC), 비트코인캐시(BCH), 카다노(ADA), 이더리움(ETH), 라이트코인(LTC), 파일코인(FIL), 오키드(OXT), 알고랜드(ALGO)

### ■ 기존 가상자산 거래소 등 핀테크와는 다른 은행만의 차별화된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

- (No lockout) 개인키 분실 시에도 개인인증을 통해 액세스가 가능하며 사망 시 Vast Bank는 수탁관리자(custodian)로서 고객이 지정한 수혜자에 가상자산을 전달
  - Chainalysis에 따르면 2021년까지 비트코인의 약 20%(1,400억 달러)가 개인키 분실 또는 보유자의 사망으로 인해 사장된 것으로 추정
- (크립토 계정 보험) Vast Bank의 예금계좌는 최대 25만 달러까지 FDIC에 의해 보장되며 가상자산 계정은 코인베이스(Coinbase)에서 제공하는 공동 보험이 적용
  - Vast Bank는 미국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코인베이스와 파트너십을 맺어 도난 손실 보험(피해배상액 최대 2억5,500만 달러)에 가입
- (저렴한 수수료) 거래수수료는 1%로 책정해 다소 높은 편이나 입출금이 무료
  - 글로벌 거래소의 평균 거래수수료는 1.0% 미만인 대신 입출금 시 추가 수수료 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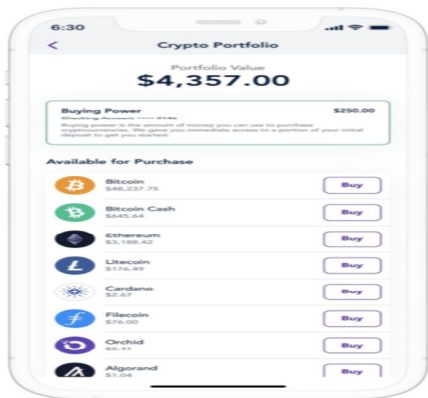
■ 한편, 美 가상자산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진입규제 확립 등 제도권 편입 논의 가속화

- ' 20.7월 美 OCC는 은행의 수탁대상 범위에 '가상자산'을 추가하여 스테이블코인 지급결제를 허용하는 한편, ' 20.9월 美 은행감독협의회(CSBS)는 미국 州마다 다른 감독규정을 단일화해 규제 부담을 완화하는 등 가상자산 관련 규제 확립 본격화
- ' 21.1월에는 美 OCC에서 Anchorage Trust에 전국 단위 신탁은행(national trust bank)인가를 승인해주면서 미국 최초로 디지털자산은행이 탄생
  - 이후 모건스탠리, JP모건, 골드만삭스 등 투자은행들도 수탁서비스, 비트코인 펀드 상품 및 선물 거래 등 가상자산 취급과 관련한 사업진출 계획을 시사
- 반면, 가상자산 예치 및 대출 서비스 '렌드(Lend)'를 준비 중이던 코인베이스는 美 SEC로부터 Wells Notice<sup>11)</sup>가 교부되어 출시 계획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
  - 코인베이스는 美 SEC에 'Lend' 관련 개발과정을 수시로 공유하며 지속적으로 접촉해 왔으나 해당 서비스를 투자 또는 유가증권으로 분류하려는 美 SEC의 입장과 충돌
- 또한 가상화폐 회의론자인 사울 오마로바(코넬대 법대교수)가 최근 美 통화감독청장으로 지명됨에 따라 가상자산의 규제 압박이 확대될 가능성 시사

■ 국내도 금융사가 가상자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필요

- 국내의 경우 ' 21.9월 자금세탁방지 목적의 특금법 시행에 이어 내년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예정 이외 가상자산 관련 구체적 제도개선 방안이 없는 상황
  - 현재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가 약 600만 명(국내 4대 거래소 기준)에 육박하는 가운데 국내 가상자산 제도화 추진이 선진국에 비해 지지부진하다는 의견도 존재
- 미국 등 선진국의 가상자산 사업에 대한 규제 논의를 바탕으로 국내도 은행 등 금융사가 가상자산 사업을 본격화할 수 있도록 단계적 제도화 마련 필요<sup>12)</sup>

■ Vast Bank의 Crypto Banking 인터페이스



자료 : Vast Bank

■ 미국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사업 인가 및 현황

금융회사	인가 및 출시 내용	가상자산 취급 범위
Anchorage Trust	21.1월 신탁은행 인가를 받아 가상자산 커스터디 서비스 시작	커스터디, 스테이킹, 가상자산 담보대출 등
BNY Mellon	21.2월 공인은행으로서 별도 라이선스 없이 디지털 커스터디 사업 진출	자산운용 고객 대상 가상자산 보유, 이전 발행업무
US Bank	21.4월 제3자 커스터디 업체와 함께 가상자산 커스터디 사업 진출	비트코인 ETF 관련 수탁 및 관리업무
Vast Bank	21.1월 美OCC 인가를 받아 21.9월 가상자산 매매 서비스 시작	개인 및 기업고객 대상 가상자산 실시간 거래 및 커스터디

자료 : 각 사 보도자료

[11] 美 SEC가 불법거래 등에 개입한 혐의가 있는 기업·개인에게 소송 제기예 앞서 해명 기회를 주는 사전 통지서

## 금리: 인플레이션 우려 고조 속 상승 압력 확대

이 화 정 수석연구원(hj\_lee89@hanafn.com)

미국채 10년 금리는 의회의 부채한도 갈등 완화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부각되며 상승했다. 국내금리는 대외금리 연동, 한은의 정책 정상화 기조, 대규모 국채선물 매도로 급등했다. 일각에서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혼란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美 경기회복 모멘텀을 손상시킬 수 있다며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제기했으나, 미국의 고용과 소비가 견조한 점을 고려할 때 지나친 우려로 판단된다. 한편 국내금리는 10월 금통위 결과를 주시하며 제한적 등락이 예상된다.

### ■ 美 국채 10년 금리는 부채한도 협상 진전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로 상승

- 원자재 가격 상승과 신흥국發 공급망 혼란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가 확대되자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가속화 가능성이 부각
  - 8월 근원PCE(3.6%, YoY)가 30년래 최고치를 기록하며 인플레 장기화 우려가 부상
- 중국은 헝다그룹의 주식거래 중단 등 디폴트 우려가 지속되는데다 전력난으로 인한 생산 차질까지 가중되면서 경기둔화 우려가 확대
- 한편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경제정상화 속 저금리를 배경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국채매입을 중단한 데 이어 7년만에 기준금리를 인상(0.25%→ 0.50%)
- 미국채 10년 금리는 부채한도 협상 진전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긴축 스탠스와 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가 부각되며 상승(9.24일 1.45% → 10.6일 1.57%)

### ■ 국내 금리는 대외금리 급등, 한은의 정책 정상화 기조와 외국인 국채선물 매도로 급등


- 정책당국이 거시·재정·금융정책을 조화롭게 운용(polixy- mix)해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함에 따라 한은의 10월 금리인상 가능성이 급부상
  - 8월 기준금리 인상의 주된 이유 중 하나였던 부동산가격은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14년 9개월만에 최고치(9월 주택매매가격 상승률 전월대비 +1.52%)를 기록
- 또한 외국인 국채선물 매도가 이어지고 국내기관 및 개인의 손절성 매도까지 출회되면서 10.6일에만 10년물 국고채 금리가 10bp 상승하는 등 패닉장세 시현
- 이후 일부 저가매수 유입과 정부의 국채 발행물량 조정 메시지로 상승폭 일부를 반납(국고 3/10년(%): 9.24일 1.58/2.16 → 10.8일 오전 1.67/2.36)



■ 미국 고용과 소비가 견조하다는 점에서 美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는 과도

-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 병목현상 등으로 글로벌 고물가가 장기화되고 나아가 경기회복 모멘텀까지 약화될 수 있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확대
  - 신흥국 팬데믹 영향이 장기화되며 반도체 등 공급망 병목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중국도 전력난과 임금상승으로 인한 생산차질이 발생하며 수출물가가 상승
- 미국의 경우 공급 부족에 기인한 인플레이션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코로나 확산세 둔화와 함께 경기가 고용·소비를 중심으로 빠르게 개선될 전망
  - 코로나 확산세 완화와 9월 실업수당 지급 중단으로 비교적 큰 폭의 고용지표 개선이 예상되고, 대면서비스 재개와 함께 서비스 소비 중심의 내수 반등 예상
- 연내 테이퍼링 개시 및 과거 대비 큰 폭의 매입축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지표는 견조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미국 금리상승 압력은 앞으로도 확대될 가능성
- 반면, 국내는 일평균 수출 증가율이 4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회복 모멘텀이 약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금리인상 단행 시 경기 회복세가 둔화될 우려

■ 대외금리 상승 경계 확대 속 10월 금통위 결과 주시하며 금리는 제한적 등락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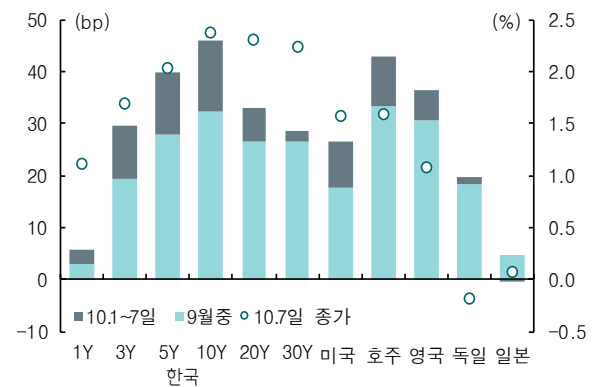
- 미국 금리는 9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파월이 언급한 ‘괜찮은(decent)’ 수준으로 나올 경우 연준의 정상화 기조에 힘이 실리고 상승압력이 부각될 전망
- 국내는 이미 기준금리 3회 인상분을 선반영하고 있으나, 10월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여부 및 기자회견 내용에 주목하며 제한적 등락 전망
  - 기준금리 동결 시 시장금리는 최근 오버슈팅된 상승폭을 일부 되돌릴 것으로 보이나, 금리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내년 1.50% 기준금리를 반영해 추가상승 예상
  - 국고채 3년, 10년 금리는 각각 1.60%~1.75%, 2.25~2.50% 범위로 전망 

■ 미국 경제 서프라이즈 지수



자료 : Bloomberg

■ 주요 국채 금리와 기간 중 변동폭



자료 : Bloomberg

## 외환: 美테이퍼링 경계에 따른 강달러 압력 지속

윤지선 연구원(jisun.yun@hanafn.com)

중국발 크레딧 리스크에 이어 美부채한도 협상 난항에 따른 정부 디폴트 리스크, 공급망 차질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美연준의 조기긴축 가능성 등 만연한 대외 악재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은 1,190원대로 급등하였다. 당장 공급발 인플레이션 압력 및 美부채한도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기 어려우며, 9월 美고용보고서 및 CPI 발표 이후 연준의 긴축 기조 강화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은 1,180~1,210원의 높은 레벨에서 변동성 국면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 ■ [원/달러 환율]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등 악재가 집중되며 1,190원 상회

- 원자재가격 급등 및 공급발 인플레이션 심화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국내 주식 외국인 매도세 강화로 원/달러 환율은 1,190원을 상회
- 이후 원자재가격 상승세 진정 가능성, 美부채한도 협상 진전, 美中 정상회담 개최 소식 등으로 위험회피 심리가 완화되면서 1,180원대로 안정되는 듯 하였으나, 美고용지표 호조에 따른 미국채 금리 상승 영향으로 1,190원대로 반등
  - 푸틴 대통령은 낮은 가격으로 천연가스를 공급할 수 있다고 발언하며 천연가스 가격이 10% 급락(10.6일)하였고, 중국 당국도 석탄 공급 확대 조치를 발표
  - 한편 한국의 9월 수출/입은 전년비 +16.7%/31.0%, 무역수지는 \$42억(전월 \$16억)

### ■ [국제 환율] 연준 조기긴축 우려, 부채한도 협상 등 리스크 요인으로 강달러 심화

- 달러인덱스는 9월 FOMC회의 이후 美연준 조기긴축 우려,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부각, 美부채한도 협상 불확실성 심화 등으로 1년래 최고치(9.29일 94.4pt)를 기록한 뒤 부채한도 협상 진전 등으로 소폭 반락
  -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에 대해 기존의 '일시적'이라는 입장에서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미국채 금리가 급등
  - 美상하원은 정부 섣다운 방지를 위해 임시 예산안을 승인(9.30일) 하였으며, 이후 美상원은 부채한도를 12.3일까지 일시 유예하는 방안에 합의(10.7일)
- 유로화는 달러화 강세 및 獨총선 이후 정치 불확실성 확대, 부진한 獨산업생산(MoM, -4.0%/예상-0.4%) 등으로 달러당 1.15유로대로 하락(20.7월 이후 최저치)
- 위안화(CNH)는 강달러 및 부동산기업 부채문제 지속, 전력난에 따른 제조업 경기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달러당 6.4위안대를 지속(10.1~7일 중국경절 연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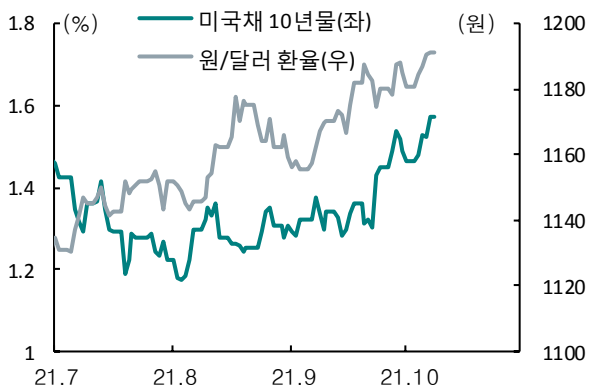
■ 당분간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어도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은 국가별 차별화 전망

- 코로나 불확실성 장기화, 글로벌 친환경정책 전환 등의 영향으로 공급망 훼손에 따른 병목현상과 이에 따른 고물가 상황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유가(WTI 11월물 기준)가 \$80/bbl에 근접하며 14년 말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블룸버그 상품지수는 2000년 이후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
- 인플레 압력 장기화는 연준의 조기긴축 가능성을 높이고, 공급망 훼손에 따른 생산 차질은 중국을 비롯한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를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달러화 강세 압력으로 작용
- 당분간 백신 접종 확대 및 ‘With코로나’ 전환에 따른 수요발 인플레 압력도 더해지며 연준 조기긴축 경계감 속에 미국채 금리 상승 및 강달러 압력이 이어질 전망
- 또한 인플레 압력이 지속되며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확산될 가능성은 국가별 산업 및 에너지 구조에 따라 차별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
  - 제조업 비중이 높은 신흥국, 新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유럽이 상대적으로 취약
- 다만 장기적으로는 현재 인플레이션 압력이 저부가가치 재화 및 서비스 부분(원자재 생산, 물류 등)에 집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병목 현상이 완화된 이후에는 오히려 유희 생산력에 따른 디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도 존재

■ 주요국 물가지표 발표에 주목하며 원/달러 환율은 1,170~1,200원 등락 전망

- 차주 미국과 중국의 물가지표 발표(10.13, 14일)가 예정되어 있으며, 9월 美고용지표와 함께 연준의 조기긴축 우려 및 강달러 압력을 심화시킬 가능성 존재
- 또한 美정부 디폴트 우려는 완화되었으나, 인프라투자 및 예산안을 둘러싼 불확실성 지속으로 원/달러 환율은 1,170~1,200원의 높은 변동성을 보일 전망 **우**

■ 미국채 10년물과 원/달러 환율 추이



자료 : Bloomberg

■ 블룸버그 상품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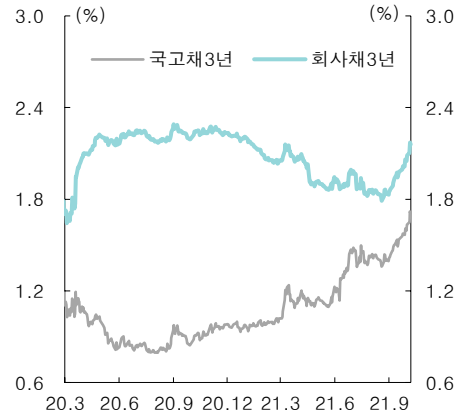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 국내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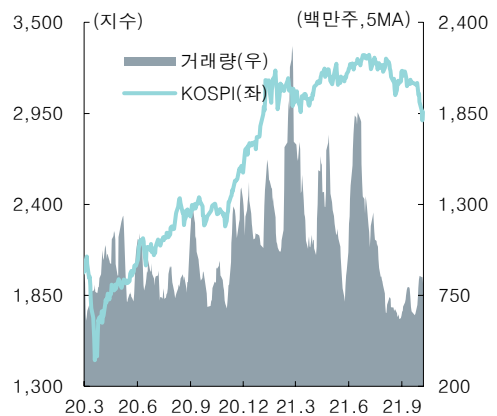
### 금리

	콜 (1일)	CD (91일)	산금채 (1년)	회사채 (AA-,3년)	국고채 (3년)	국고채 (5년)
'19년말	1.39	1.53	1.49	1.94	1.36	1.48
'20년말	0.61	0.66	2.21	0.98	1.36	1.48
8월말	0.90	0.92	1.21	1.83	1.40	1.65
9월 30일	0.92	1.04	1.35	2.05	1.59	1.93
10월 01일	0.71	1.04	1.37	2.09	1.63	1.96
10월 05일	0.69	1.04	1.37	2.10	1.65	1.99
10월 06일	0.73	1.05	1.40	2.17	1.72	2.08
10월 07일	0.67	1.05	1.39	2.16	1.70	2.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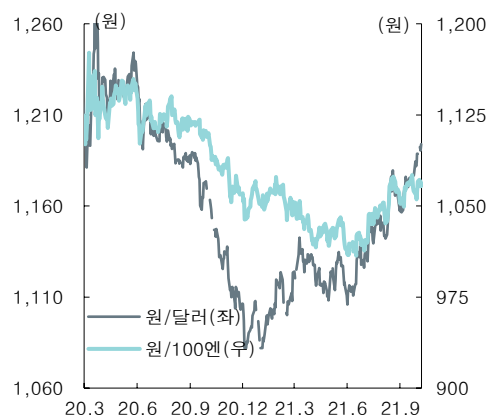
### 주가

	KOSPI	거래대금 (억원)	거래량 (백만주)	외인순매수 (억원)
'19년말	2,197.7	41,136	416	-3,404
'20년말	2,873.5	1,074	416	-3,404
8월말	3,144.2	117,587	603	-2,339
9월 30일	3,068.8	149,429	886	372
10월 01일	3,019.2	129,440	855	-3,035
10월 05일	2,962.2	153,155	841	-6,206
10월 06일	2,908.3	156,686	902	-2,769
10월 07일	2,959.5	119,067	595	-1,050



### 환율

	원/달러	원/100엔	원/위안	원/유로
'19년말	1,156.4	1,064.2	166.0	1,297.1
'20년말	1,086.3	166.3	166.0	1,297.1
8월말	1,157.2	1,053.4	179.4	1,369.1
9월 30일	1,188.7	1,063.3	183.6	1,371.0
10월 01일	1,188.7	1,070.2	184.4	1,378.2
10월 05일	1,192.3	1,066.3	184.4	1,378.5
10월 06일	1,190.4	1,070.0	185.0	1,377.7
10월 07일	1,193.9	1,066.4	184.6	1,37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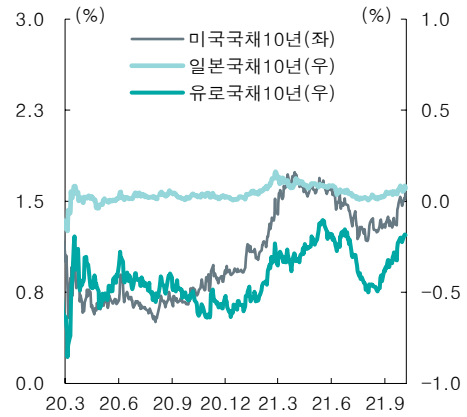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연합뉴스포맥스

## 해외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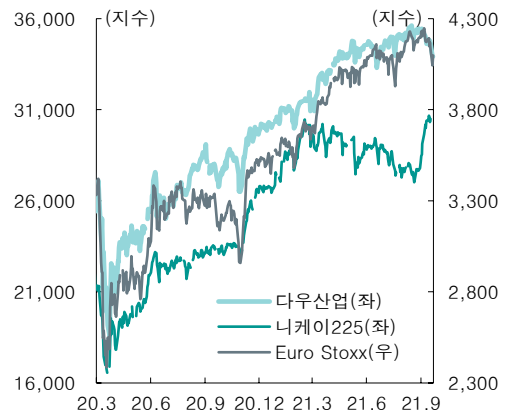
### 금리

	미국			일본 국채10년	유로 국채10년	
	FFR	리보(3월)	국채2년			
'19년말	1.55	1.91	1.57	1.92	-0.01	-0.19
'20년말	0.09	0.24	0.12	0.91	0.02	-0.57
8월말	0.08	0.12	0.21	1.31	0.03	-0.38
9월 30일	0.08	0.13	0.28	1.49	0.07	-0.20
10월 01일	0.08	0.13	0.26	1.46	0.06	-0.22
10월 05일	0.08	0.12	0.28	1.53	0.06	-0.19
10월 06일	0.08	0.12	0.29	1.52	0.08	-0.18
10월 07일	0.08	0.12	0.31	1.57	0.07	-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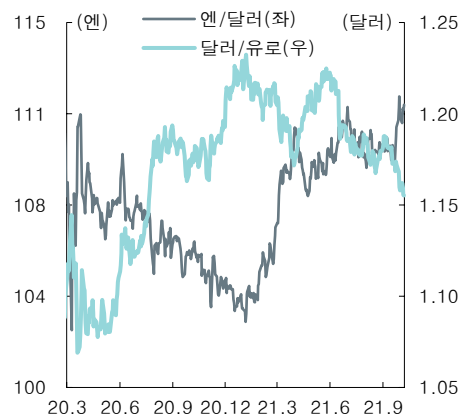
### 주가

	다우산업	니케이225	상하이종합	Euro Stoxx
'19년말	28,538.4	23,656.6	3,050.1	3,745.2
'20년말	30,606.5	27,444.2	3,473.1	3,552.6
8월말	35,360.7	28,089.5	3,543.9	4,196.4
9월 30일	33,843.9	29,452.7	3,568.2	4,048.1
10월 01일	34,326.5	28,771.1	-	4,035.3
10월 05일	34,314.7	27,822.1	-	4,065.4
10월 06일	34,417.0	27,528.9	-	4,012.7
10월 07일	34,754.9	27,678.2	-	4,098.3



### 환율/상품

	환율		상품	
	엔/달러	달러/유로	Dubai(\$/배럴)	Gold(\$/온스)
'19년말	108.66	1.122	67.3	1,523.1
'20년말	103.25	1.222	51.1	1,895.1
8월말	109.99	1.181	71.2	1,818.1
9월 30일	111.27	1.158	75.9	1,757.0
10월 01일	111.06	1.159	75.7	1,758.4
10월 05일	111.46	1.160	79.6	1,760.9
10월 06일	111.39	1.155	80.6	1,761.8
10월 07일	111.62	1.155	77.4	1,759.2



자료 : Bloomberg, 연합뉴스포맥스





## 하나금융포커스

제11권 21호

등록번호 서울중, 다00037

등록일자 2011년 3월 21일

2021년 10월 9일 인쇄

2021년 10월 11일 발행

발행인 박성호

편집인 윤병수

발행처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대표전화 2002-2200

홈페이지 [www.hanaif.re.kr](http://www.hanaif.re.kr)

인쇄 (주)광문당

본 지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www.hanaif.re.kr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하나금융포커스 제11권 21호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Tel 2002-2200 Fax 2002-2610